

한국수화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 분석

남 기 현 · 원 성 옥 · 허 일

언어연구

제26권 제4호 2011년 2월

한국현대언어학회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한국수화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 분석

남기현*

(고려대학교)

원성옥

(한국재활복지대학)

허일

(한국재활복지대학)

Nam, Ki-Hyun & Won, Seong-Ok & Heo, Il. 2011. Analyzing constructed actions which appear in the narrative of Korean Sign Language.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6.4, 767-789. This paper aims to study what main types of constructed actions are which appear in the narrative of Korean Sign Language (henceforth, KSL) and what the roles are that are occupied by constructed actions in the whole meanings of narratives. For this study, we analyzed the sign language narrative of one Deaf people. In KSL narratives, constructed actions are expressed mainly by face and eye gaze direction, fine direction changes of upper body, and emotion and facial expression of the certain quoted someone. In particular, the eye gaze of sign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whole narrative. As seen in the analysis, there are many more cases in which direction action and indirection action occur simultaneously than the cases in which the two occur independently of each other. This seems to be a unique phenomenon of KSL. When constructed actions are expressed by direction change of body and eye gaze and signs by hands of the signer occur simultaneously, although both, that is non-manual signals and manual signals, disagree in meaning, meanings of both combine to compose meanings of the narrative. (Korea University,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Key words: Korean Sign Language, Narrative, Constructed action, Role-playing, Role-shifting, Non-manual signals

1. 서론

담화에서 대화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발화 상

* 교신저자

황이 아닌 예전에 일어났던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의 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용되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 등을 재현한다. 이처럼 '내러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구두적 상호작용에서 화자들은 자신의 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제 3자의 말을 반복하고 전달한다.'(송경숙, 2003: 198)

마찬가지로 수화에서도 수화자들은 자신의 몸,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실감나게 전달하는데, 이를 '구성된 행위(constructed action)'라 한다. 이러한 구성된 행위는 '역할 연기(role-playing)' 또는 '역할 전환(role-shifting)' 등의 용어로 언급해왔다(Metzger, 1995: 255).

수화 내러티브에서 구성된 행위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내러티브 전체의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된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수화자는 시선 응시, 얼굴 표정, 상체의 방향 변화 등으로 캐릭터의 역할을 표현한다. 이때 청자는 내레이터가 의도한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된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서 그것이 어떤 구성된 행위인지, 그리고 구성된 행위가 캐릭터 중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해야(Liddell & Metzger, 1998: 672) 내러티브의 전체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Metzger(1995)는 구성된 담화 자체를 구성된 행위의 유형이라고 본 것처럼 수화 내러티브에서 구성된 행위는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스며들어 있고 풍부하게 나타난다.

수화에서 구성된 행위는 주로 수화자의 시선의 방향 혹은 응시, 얼굴 표정과 상체의 사용 등 비수지 신호로 나타난다. 수화문에서 비수지 신호는 담화적인 장치 혹은 감정 표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화 내러티브에서 구성된 행위와 관련하여 비수지 신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절에서 비수지 신호의 문법적 역할을 간단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수화 문헌에서 역할 연기, 역할 전환 등으로 언급되어 온 구성된 행위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음성언어의 구성된 대화의 개념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4절에서는 수화에서 구성된 행위의 유형을 고찰한 다음, 5절에서는 한국수화를 모어로 사용하는 수화자(signers)를 대상으로 한국수화 내러티브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6절에서는 한국수화 내러티브에서 구성된 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7절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비수지 신호의 문법적 역할

1960년에 Stokoe에 의한 미국수화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수화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수화는 완전한 언어가 아니며 음성언어처럼 분절될 수 없는 그저 음성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농인들(Deaf)의 손짓이라는 것이었다. Stokoe는 처음으로 음성언어의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의 수화어(signs)가 분절된다는 것을 밝혀 수화가 언어적 측면에서 연구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이후 본격적인 수화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음성언어가 음소로 구성되듯이 수화어는 손의 모양, 위치, 움직임으로 구성된다고 제안되었고, 이후 손의 공간적 방향이 추가되었다. Stokoe의 선구적인 작업 이후에 수화어는 비-수지적 특징과 수지적 특징으로 구성된다고 인식되었다(Crasborn 외, 1998).

수화 언어학에서 수화어를 구성하는 비수지적 특징은 보통 '비수지 신호(non-manual signals)'라고 불려왔다. 음성언어에서 억양, 음의 크기, 높이 등의 초분절음이 준언어적인 요소로 연구되어 온 것처럼 수화 연구에서도 수화자의 얼굴, 머리, 신체로 이루어지는 비수지 신호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적었다(Liddell, 1980: 12). 그것은 비수지 신호가 주로 감정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수지 신호는 수화 어휘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자질이 됨은 물론 문법의 표지 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면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본고에서는 Liddell(1980)의 미국수화의 비수지 신호 연구에 기초하여 수화에서 비수지 신호의 역할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특정한 비수지 신호는 어휘 항목과 연결되어 어휘 항목의 일부로 혹은 선택적 강화자(reinforcer)로 고려될 수 있다. 가령 미국수화에서 BITE는 입의 무는 모션이, BEG는 애원하는 표현이, RELIEVED은 오픈된 입술을 공기 중에 파열시키는 빠르게 내뿜음이 동반된다. 제시된 미국수화 수화어들과 동반되는 비수지 신호는 어느 정도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놀람, 두려움, 화남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 표정을 사용한다(ibid., 53).

다음으로 비수지 신호는 문법적 표지를 담당한다. 비수지 신호를 통해 Yes/No 의문문, 제한적 관계사절(restrictive relative clause), 화제(topic)에서 문법적 표지를 나타낸다. Liddell(ibid., 18-23)이 제시한 세 가지 문법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1)-(4)예문은 WOMAN FORGET PURSE, 즉 세 개

의 수화어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단지 비수지 신호를 통해 다르게 해석된다.

첫째, (1)를 아무런 표지자 없이 산출한다면 ‘여자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된다.

(1) WOMAN FORGET PURSE

‘여자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둘째, (2)에서는 (1)과 같은 수화어를 동일한 어순으로 하면서 동시에 눈썹을 올리고, 머리와 신체를 앞으로 내민다. 이때 문장 위의 ‘q’는 ‘눈썹 올리기, 머리 앞으로 하기, 신체 앞으로 하기’를 나타내는데, 이 표지는 Yes/No 의문문을 표시한다. 이 세 가지 비수지 구성소가 모두 나타나는 것이 의문 신호의 완전한 형태이나, 때로는 눈썹 올리기만으로도 Yes/No 의문문을 충분히 나타낸다.

q

(2) WOMAN FORGET PURSE

‘여자가 지갑을 잃어버렸니?’

셋째, (1)와 동일한 수화어를 하면서 동시에 ‘r’로 상징되는 비수지 신호가 함께 산출된다면, 이 문장은 제한적 관계대명사절을 형성한다. 이때의 ‘r’이라는 비수지 신호는 ‘눈썹 올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윗입술 올리기’라는 구성소가 함께 나타난다.

r

(3) WOMAN FORGET PURSE RECENTLY ARRIVE

‘지갑을 잃어버린 여자가....’

넷째, (1)의 문장에서 첫 단어를 하면서 머리를 약간 뒤로 기울이면서 눈썹을 올리면 이 문장은 화제화가 된다. 이때 ‘눈썹 올리기, 머리 약간 뒤로 기울이기’는 ‘n’라고 나타낸다. 그리고 ‘n’로 표시되어 화제화가 된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 길게 유지된다.

t

(4) WOMAN FORGET PURSE

‘여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자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Liddell(1980)이 제시한 비수지 신호는 수화자의 ‘눈썹 올리기’, ‘머리와 신체 앞으로 하기’, ‘윗입술 올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등이었다. 특히 문법적 기능에서 ‘눈썹 올리기’는 공통적으로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미국수화 선행 연구를 통해 수화의 어휘와 문장 속에서 비수지 신호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수화 내러티브에서 수화자는 구성된 행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비수지 신호를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따라서 수화 언어학에서 ‘구성된 행위’라고 언급해온 것을 살펴본 후 한국수화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는 구성된 행위를 분석하기로 하겠다.

2.2 구성된 행위의 의미와 기능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누군가의 말을 현재의 대화에서 전하게 된다. 이때 현재 화자의 말로 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로 전하게 된다. Tannen(2007: 102)은 음성언어에서 구성된 대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화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차후에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빈번하게 말하는 방식은 ‘전달된 말(reported speech)’이다. 이것은 ‘직접적 말(speech, discourse, quotation)’과 ‘간접적 말’로 표현된다. 직접적 인용(혹은 직접적인 담화 혹은 직접적인 말)은 다른 사람의 발화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대화가 구성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간접적 인용(혹은 간접적인 담화, 혹은 간접적인 말)은 누군가의 말이 현재 화자의 목소리로 다시 표현될 때 사용된다고 이해된다.”

이처럼 음성언어의 구두적 상호작용에서 화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적 말 혹은 간접적인 말로 전달한다. 수화에서 구성된 행위의 연구는 대화 상황에서의 구성된 행위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Metzger, 1995)와 내러티브에서의 구성된 행위를 분석한 연구(Liddell & Metzger, 1998; Emmorey & Reilly, 1998) 등이 있는데, 본고는 후자에 기초하여 한국수화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려고 한다.

음성언어 내러티브에서 내레이터가 이야기 속의 캐릭터의 관점을 취하여 그와 같은 얼굴 표정과 억양을 함께 산출하면서 캐릭터의 말을 설명하거나 시연하듯이, 수화 내러티브에서도 수화자들은 캐릭터의 행동을 기술하는 동안 캐릭터의 관점을 취한다(Emmorey & Reilly, 1998: 81).¹⁾ 즉 수화에서

전달된 말은 비수지 신호를 통해 수행되는데, 비수지 신호에는 수화자의 신체, 머리 혹은 어깨 자세의 변화, 응시 방향의 변화, 얼굴 표정의 변화를 포함한다(Engberg-Pedersen, 1993; 103). 비수지 신호의 변화를 ‘역할 전환(role shifting 혹은 role shift)’이라고 불리웠지만 Engberg-Pedersen(1993)은 이 용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포함되는지를 항상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역할 전환을 기능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환된 지시(shifted reference)와 표현 요소의 전환된 속성(shifted attribution of expressive elements) 그리고 전환된 위치(shifted locus)가 그것이다. 여기서 ‘전환된(shifted)’이라는 용어가 반복되는데 그녀는 ‘Jakobson의 전환자(shifter)라는 용어에서 차용하였지만 그녀의 글에서는 다르게 사용됨’을 강조한다. 세 가지 현상은 동시에 발생하거나 개별적으로 발생한다(ibid., 103-106). 먼저 ‘전환된(shifted)’이란 용어를 보면,

“전환된이란 발화 맥락의 발신자의 관점에 관련하여 변했음을 의미한다: 발신자(sender)는 그녀 자신을 위해 1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그녀 자신을 위해 발신자 위치를 사용하고 그녀의 표정과 신체 자세를 통해 그녀의 현재의 느낌과 태도를 표현하고 그녀는 지금 여기에서 발신자로서의 그녀 관점을 표현한다. 그녀가 누군가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이들 요인들 중 하나의 사용을 바꿀 때마다 전환이 발생한다(Engberg-Pedersen, 1993: 104).”

여기서 ‘전환되었다’는 것은 발화의 발신자의 관점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째는 전환된 지시로 “인용된 발신자의 관점에서 대명사를 사용하고 특히 인용하는 발신자 외에 누군가를 언급하기 위해 1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다(ibid., 103).” 즉 수화 담화에서 수화자가 1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수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자가 인용하고 있는 인용된 발신자, 즉 발화 맥락의 발신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화자가 1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수화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는 표현 요소의 전환된 속성이다. “발화 맥락에서 발신자 외 누군가의 감정 혹은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수화자의 얼굴과 혹은 신체 자세를

1) 두 언어 간의 차이는 음성언어에서는 캐릭터의 말을 인용한다면 수화에서는 캐릭터의 말보다는 행동을 인용한다는 것이다(ibid., 1998: 81). 하지만 Metzger(1995)는 구성된 행위가 구성된 대화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즉 미국수화에서 구성된 대화는 실제로 구성된 행위의 한 형태임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구성된 행위는 담화에서 발생되는 듯하고 구성된 대화는 단순히 한 유형으로 보았다.

사용하는 것이다(ibid., 103).” 여기서도 발화 맥락의 발신자의 관점으로 변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수화자는 자신의 얼굴 표정과 신체 자세를 통해 발화 맥락의 발신자의 현재의 느낌과 태도를 표현한다.

세 번째는 전환된 위치이다. “수화자 외에 누군가를 위한 발신자의 위치 사용 혹은 수화자를 위한 c위치보다 다른 위치의 사용이다(ibid., 103).” 위의 두 특성과 마찬가지로 전환된 위치도 발신자의 관점으로 변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c는 중립적 위치로 보인다. 수화자는 발화 맥락의 발신자가 되어 ‘정면을 향하는 중립적 위치보다는 한쪽 면으로의 지각 가능한 전환을 취하게 된다(Padden의 언급으로 ibid., 103에서 재인용).

Tannen(2007: 107)이 강조를 두는 것은 현재 화자가 누군가의 말을 전달할 때 “전달된 말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현재 화자에 의해 창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미국수화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구성된 행위의 개념은 이러한 점에서 음성언어에서 사용되는 구성된 대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수화 담화에서 수화자들은 원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자가 구성한 말로 전달하게 된다.

“구성된 행위의 개념은 구성된 대화가 전달되는 말의 직접적 복사가 아니고 현재 화자가 재구성한 말인 것처럼, 구성된 행위도 캐릭터의 행위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다. 이는 현재 수화자가 캐릭터의 행위를 재구성한 행위이다(Metzger, 1995).”

2.3 구성된 행위의 유형

Metzger(1995: 257)는 Tannen(1989)의 구성된 대화에 기초하여 대화 상황에서 미국수화의 구성된 행위를 연구하였다. <표1>의 왼쪽 칸은 음성언어의 구성된 대화 범주이고 오른쪽 칸은 미국수화의 구성된 행위 범주이다.²⁾ Metzger는 동일한 범주들을 미국수화에서도 사용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화 구문 중에서 ‘내적 행위로서 행위’, ‘다른 사람의 내적 행위’는 구성된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듯하다고 지적한다. 내적 언어가 내적 행위인듯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대부분이 순서 바꾸기(turn-taking)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자에 의한 구성된 행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2) <표1>은 Metzger(1995: 257)의 논문에서 구성된 대화 범주와 구성된 행위 범주만을 가져온 것이다. 원래의 표에서 대화와 행위의 예는 생략하였고 내적행위로서 행위와 다른 사람의 내적 행위 뒤의 ‘?’는 그대로 가져왔다.

<표1> 구성된 대화와 구성된 행위 범주(Metzger, 1995: 257에서 인용)

	구성된 대화 범주	구성된 행위 범주
1	말해지지 않은 것을 표현	행하지 않은 것을 표현
2	예시(insanitation)로서 대화	예시(insanitation)로서 행위
3	대화 요약	행위 요약
4	합창 대화	합창 행위
5	내적 언어로서 대화	내적 행위로서 행위?
6	다른 사람의 내적 언어	다른 사람의 내적 행위?
7	청자에 의해 구성된 대화	청자에 의한 구성된 행위
8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직접/간접 인용)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직접/간접 행위)
9	모호한 지시체	모호한 '행위'
10	비인간 화자	비인간 행위

본고에서는 <표1>에서 제시한 10가지 범주를 한국수화에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음성언어의 구성된 대화의 설명과 예는 생략하기로 한다.

Metzger(1995: 262-265)는 미국수화에서 구성된 행위의 언어적 형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가. 직접적 행위(direct action): 미국수화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직접적 행위는 비교적 단순하다. 수화자는 행위와 사건을 구성하기 위해 수화자의 신체, 머리, 얼굴, 눈을 사용한다. 어휘적 수화어 혹은 분류사(classifiers)³⁾를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3) “각국의 수화에는 공간적 관계와 움직임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물체의 모양과 차원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잡한 형태적 시스템이 존재한다. 명사 부류 형태는 일련의 손의 모양 즉 ‘수형(handshape)’으로 표현되며 이들 수형 단위들은 공통적으로 수화 문헌에서 ‘분류사(classifiers)’로 불린다.”(Sandler & Lillo-Martin, 2006).

분류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Supalla, 1982; 남기현, 2009: 712에서 재인용).

가. 크기와 모양 특정자(Size and Shape Specifiers: SASSes): 수형이 사물의 크기와 모양을 나타낼 때, 손은 형태소로서 각각 지시물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낸다.

나. 의미 분류사(Semantic Classifiers): 손 조음자(hand articulators)가 지시 사물의 의미적 범주를 나타내어 ‘의미 분류사’라 한다. 의미 분류사는 전체 수형에 의해 표현되는 단일형태소이다.

다. 신체 분류사(Body Classifiers): 수화자의 전체 몸을 물리적으로 표지한다.

라. 신체부분 분류사(Bodypart Classifiers): 손 혹은 수화자 신체의 다른 부분은 지시체의 신체 일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가령 손과 신체를 이용하여 머리, 입, 다리 같은 신체의 시각적-기하학적 표현이 사용된다.

마. 도구 분류사(Instrument Classifiers): 도구를 조작하는 모방적 표현 혹은 도구

- 나. 동시에 일어나는 직접적 행위와 간접적 행위(simultaneous direct and indirect action): 수화자는 사건을 구성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얼굴 등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코멘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코멘트는 발생한 행위를 지지하거나 기술한다. 가령 두 사람의 대화를 표현하기 위해 수화자는 먼저 왼쪽 위를 쳐다보는 구성된 행위를 구성하고 LOOK-UP이라는 수화어를 한다. LOOK-UP은 이미 몸으로 구성한 왼쪽 위를 향한다. LOOK-UP은 구성된 행위를 가진 캐릭터에 의한 코멘트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수화자가 캐릭터의 행위를 구성하면서 산출한 간접적인 기술이다.
- 다. 간접적 행위(indirect action): 내레이터가 사건을 내레이션할 때 여전히 최소한으로 신체를 포함한다. 간접적 행위는 더 많은 내레이션과 더 적은 신체의 개입이다. 가령 수화자는 의자에서 떨어지는 남자의 행위를 기술하기 위해 분류사를 사용한다. 이는 내러티브의 일부를 구성하기 위해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내러티브 안에서 이러한 구성된 행위의 세 유형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체를 이룬다. 즉, 연속체의 한쪽은 신체, 머리, 얼굴 표정, 시선 응시를 통해 캐릭터의 행위를 구성하는 직접적 행위가 있다면 연속체의 반대쪽은 수화자의 몸, 사지, 시선 응시, 얼굴 표정의 사용은 최소화되고 많은 양의 내레이션이 사용되는 간접적 행위가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연속체의 중간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직접적 행위와 간접적 행위가 차지한다. 수화자는 수화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구문을 내러티브의 어떤 시점에서 사용할 지를 선택한다(Metzger, 1995; 265). 즉 수화자는 Metzger의 구성된 행위 중 직접적 행위를 수화자의 신체(비수지 신호)를 통해 산출하고, 직접적 행위는 분류사나 수화어와 같은 손(수지 부호)을 통해 산출한다. 특히 간접적 행위는 수화어로 전달되는 내레이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한국수화 내러티브를 분석하기 위해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한 컷 그림 만화 「잡는 사람」(catcher)을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외국에서 제작되었지만 한국에서도 친숙한 만화이기 때문에 한국 수화자들이 수화로 표현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특히 글자가 없이 그림으로만 사건을 표현하기 때

문에 매체 특성적으로 볼 때 음성언어의 간섭을 피함으로 농인 수화자들에게 적합한 자료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네덜란드수화(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에서 분류사(classifiers: CL)를 이끌어내기 위해 Zwitserlood(2003)이 고안한 것이다.⁴⁾ 하지만 이 자료는 한 명의 수화자가 한 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화 내러티브를 이끌어 낼 수 있음으로 원래의 목적인 분류사의 유도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성된 행위도 풍부하게 담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수화 농인의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언어제공자로 참여한 농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3세에 청력을 손실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소재한 농학교에 재학하여 어린 시기부터 수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였다. 현재 농사회(Deaf society)에서 정기적으로 농인들을 만나 한국수화를 가장 편안한 제 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수화자이다.

수화 내러티브를 수집하기 위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수화 내러티브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elicitation) 작업은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를 도와주는 농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환경과 연구자에게 친숙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그리고서 유도 자료인 그림을 언어제공자인 농인에게 제시하였다. 농인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후에 수화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비, 즉 1대의 캠코더로 연구자가 농인의 수화를 녹화했다. 녹화된 필름은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도록 wmv 파일 형태로 변환했다. 분석 및 전사는 국가공인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10여 년간 농사회에서 농인과 교류하고 수화통역을 담당한 연구자가 하였다. 수화자의 내러티브와 그림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자가 작성한 「잡는 사람」(catcher)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늑대와 돼지 삼형제 이야기이다. 늑대는 돼지 삼형제를 잡기 위해 잡는 기계를 만든다. 잡는 기계는 커다랗고 둥근 몸체인데 그 몸체의 원통형 둘레를 따라 여러 개의 집게가 달려있다. 늑대는 돼지 삼형제를 발견하고 잡는 기계를 운전하며 돼지 삼형제를 뒤쫓는다. 이때 잡는 기계가 나뭇가지에 세계 부딪힌다. 늑대는 넘어졌다가 기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돼지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기계의 버튼 세 개를 동시에 누른다. 하지만

4) Zwitserlood는 기꺼이 그녀의 자료를 공유해 주었다. 그녀의 호의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수화 제공자로서 참여해주실 뿐만 아니라 한국수화 수화어의 공통되고 일반화된 표기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한글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비수지 신호를 사진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송재립 선생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계가 나뭇가지에 부딪힐 때 고장이 나서 기계는 오작동으로 돼지 삼형제가 아닌 늑대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 기계는 늑대를 거꾸로 집어 올리고 경찰서로 끌고 간다. 결국 늑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분석 결과는 한 명의 수화자의 내레이션을 집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한국어로 전사하여 제시하였다. 비수지 신호는 한글로 표기하여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으로 촬영한 비디오 자료에서 캡처한 정지 화면을 함께 제시하였다.⁵⁾

4. 한국수화 내러티브 분석 결과

본고의 주된 초점은 한국수화 내러티브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의 유형이다. 분석 결과의 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반적인 내러티브의 구조에 맞춰 제시한 뒤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의 유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내러티브는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시작 단계인 요약, 오리엔테이션과 사건 전개 단계인 복잡화 행동, 그리고 결론 단계인 평가, 결과, 그리고 코다이다(Labov, 1972; 송경숙, 2003: 224-225에서 재인용):

“**요약(abstract)**은 전반적인 내러티브의 요점과 주제가 나타나는 단계이며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은 내러티브 속의 인물, 사건, 장소, 상황 등을 지시하는 단계이다. 복잡화 행동(**complicating action**)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의 전개이다. 평가(**evaluation**)는 내러티브의 주제를 나타내는 수단이며 결과(**resolution result**)는 내러티브 도중에 제시되는 사건의 결말이다. 마지막으로 코다(**coda**)는 내러티브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수화자는 내러티브를 기술하면서 주인공인 아빠 늑대와 그의 아들 그리고 돼지들을 모두 [남자][늑대], [남자][아들], [남자][돼지]와 같이 [남자]를 앞에 두어 동물을 의인화하였다. 이는 늑대와 돼지를 사람으로 등장시켜 이야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며, 구성된 행위

5) 수화문의 전사는 세 줄로 표시된다. 첫째 줄은 수화어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비수지 신호를, 둘째 줄은 손으로 표현된 수화어를, 셋째 줄은 한국어 번역이다. 수화어는 [] 안에 표기되며 수화어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비수지 신호는 함께 나타나는 수화어 바로 위에 줄을 긋고 청자 응시, 입술 양쪽 꼬리 아래로 내림처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비수지 신호의 제시 순서는 얼굴 방향, 시선응시, 입 움직임 순이다. 한국어 번역은 큰따옴표(“ ”) 안에 넣어 표현한다. 그 외에 사용되는 표기 기호들은 해당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한다.

와 관련해서는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말 등을 보다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야기의 시작을 언급하는 도입부는 (5)과 같다. 요약(abstract)은 전반적인 내러티브의 요점과 주제가 나타나는 단계인데 (5)에서 보듯이 명확하게 그러한 특징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은 [이야기를 시작하다] 수화어를 통해 나타낸다. [이야기를 시작하다]는 일반적인 [시작하다]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나는 때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하다]라는 구 형태로 표기하였다.⁶⁾ 수화자의 양손을 주먹 쥐어 자신의 몸 앞에서 전후로 위치한 후 양손의 손가락을 천천히 퍼면서 위로 그 다음 양옆으로 이동한다.

<사진1> [이야기를 시작하다]



수화자는 청자와의 시선 맞춤(청자응시)을 통해 청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즉 내레이션 부분임을 나타낸다(첫째 줄). 둘째 줄은 지금까지 이야기는 늑대가 돼지 삼형제를 잡는 내용이 주였지만 이번 이야기는 새롭게 유행하는 내용이라며 청자의 흥미를 유도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특히 셋째 줄의 비수지 신호 입술 양쪽 꼬리 아래로 내림은 보편적으로 회자되던 기존의 '늑대와 돼지 삼형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 보인다.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수화자의 시선은 청자에게 고정된다. 그리고 셋째 줄 끝과 생략된 다음 문단 사이에 휴지(pause)가 있는데, 이후에 내러티브 속의 인물, 사건, 상황 등이 제시되는 오리엔테이션 단계가 이어짐을 나타낸다.

6) 이 수화어는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의 첫 부분임을 나타낸다. 수화어 형태는 예전에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커튼의 열리고 닫힘으로 영화 상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과 유사하다. 이야기를 잘하는 동인이 마치 연사처럼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본 영화를 말해줄 때, 재미있는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이러한 수화어를 서두에 넣어 '내 이야기를 시작할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등등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수화어는 '공부를 시작하다', '식사를 시작하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11)에서 이야기를 끝날 때 반대 동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종결된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정도의 의미가 된다.

(5) 청자응시

[이야기를 시작하다][이야기][무엇]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청자응시

[예전][보통][첫번째][늑대][돼지][3][형제][잡다][이야기][모두][이야기][그러나]

“예전에는 보통 늑대가 돼지 삼형제를 잡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청자응시/입술 양쪽 꼬리 아래로 내림

[새롭다][유행하다1][유행하다2][내용][무엇] 휴지(pause)

“새롭게 유행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음은 늑대가 잡는 기계를 만드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실제 사건의 전개인 복잡화 행동(complicating action) 단계로 볼 수도 있지만 아빠 늑대와 아들 늑대가 등장하는 것과 사건의 발생을 위한 예비적인 상황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오리엔테이션 단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는 아빠 늑대와 그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6)에서 [남자][늑대][아들]이라고 했지만 바로 연이어서 [늑대][만들다1]로 하여 아빠 늑대가 잡는 기계를 만들음을 표현했다. 이때 주목할 것은 ‘늑대가 잡는 기계를 만들다’를 표현하기 위해 수화자가 [만들다2]를 하면서 자신의 손을 응시한 점이다. 문장의 처음과 끝의 청자응시는 내레이션 부분이라면 중간에 있는 손응시는 늑대의 행위를 표현한 구성된 행위이다. (6)문장 끝에 [무엇]은 늑대가 공들여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러 개의 집게가 원통형의 몸체에 돌려가며 달려있는 잡는 기계의 모습은 분류사, 특히 크기와 모양의 특정자와 기계의 집는 기능을 나타내는 도구 분류사로 표현하였다. 분류사로 표현한 잡는 기계의 전사와 설명은 본고에서는 생략하였다.

(6) 청자응시 손응시 청자응시/의문

[남자][늑대] [아들][만들다1][늑대][만들다1][만들다2] [무엇]

“늑대와 아들이 만든다. 늑대가 공을 들여 만들고 있다.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7)은 아빠 늑대와 그의 아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다. 수화자는 자신의 상체를 눈에 띄게 움직이기보다 고개와 시선, 그리고 상체의 방향 변화로 아빠 늑대와 아들을 역할 전환(role shift: RS로 이탤릭체로 표시)으로 표시한다. 수화자는 [남자][아들]에 연이어 [무엇]이라는 수화어를 산출하면서

왼쪽 위를 응시하고 의문의 표정을 짓는다(첫째 줄). 이는 아들이 아빠 늑대에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 것이다. 바로 연이어 수화자는 시선을 오른쪽 아래를 응시하며 아빠 늑대가 아들에게 설명해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둘째 줄). 그리고서 수화자는 다시 왼쪽 위를 응시한다(셋째 줄). 이것은 아들의 역할로 다시 되돌아 온 것이다. 이때는 수화어 없이 얼굴 표정만으로 아빠 늑대의 말을 못 믿겠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넷째 줄은 역할 전환이 끝나고 상황을 기술하는 내레이션 부분이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늑대를 위해서는 왼쪽 위를 아들을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를 향한 것이다. 즉 성인과 아동의 키의 차이를 시선이 향하는 높이로 나타내었다.

(7) RS: 왼쪽 위 응시/의문

[남자][아들] [무엇]

늑대 아들: ‘뭐예요?’

RS: 오른쪽 아래 응시

[지시][폐지][잡다][가능][목적] CL:기계로 잡다[가능][도망] CL:기계로 잡다[가능]

늑대: ‘이거는 폐지를 잡기 위한 거야. 기계로 잡을 수 있지.
(폐지들이) 도망가면 기계로 집어 올려 잡을 수 있어.’

RS: 좌공간 위 올려다보다가 시선 아래로 내림/

입술 양옆으로 하여 ‘프’입모양

수화어 없음

늑대 아들: ‘아빠를 쳐다보고 못 믿겠다는 얼굴 표정을 짓는다.

고개 한쪽으로 기울임/양 볼 부풀림/다문 입술 앞으로 내밀

[아들] [이상하다]

[가버리다]

“아들은 이상해 하며 가버렸다.”

<사진2>



a. 아들 늑대



b. 늑대



c. 아들 늑대

<사진2a>은 아들이 아빠 늑대를 쳐다보며 질문하는 것으로 이때 수화자의 손은 흐릿하지만 [무엇]을 산출하고 있다. <사진2b>는 늑대가 말하는 부분으로 손은 검지만 편 수형으로 [지시]를 산출하고 있다. <사진2c>는 아들의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손은 바로 전에 있었던 수화어 [가능하다]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비수지 신호와 관계없다. 따라서 이 수화어는 여기서는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이제 내러티브는 본격적인 사건들이 전개된다. 즉 복합화 행동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아빠 늑대는 돼지 삼형제를 잡기 위해 자신이 만든 기계를 작동해 본다. 기계에 올라타고 돼지들을 찾아 나선다. (8)는 돼지 삼형제를 잡기 전에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시험해보는 장면이다. 수화자는 한손 엄지를 다른 손 검지와 엄지로 잡고 위로 올리는 분류사(CL: 사람을 집어 올린다)로 표현한다. 이것은 기계로 집어 올려진 누군가를 표현한 것이다. 기계가 사람을 집어올린 부분에서 이미 수화자의 얼굴 표정이 들려진 사람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CL: 사람을 집어 올린다와 [괴롭다]라는 수지 부분과 입을 벌리고 머리를 들어 위를 응시하는 비수지 부분이 동시에 발생하지만 수지 부분은 내레이션 부분이고 비수지 신호는 행동을 당하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표현한 구성된 행위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둘째 줄도 기계로 사람을 들어 올리는 수지 부분은 내레이션을 나타내고 흡족해 하는 아빠 늑대의 모습은 비수지 신호로 나타낸다. 셋째 줄은 아빠 늑대의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문장 말미의 [찾다]의 느린 동작은 아빠 늑대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줄은 내레이션 부분으로 청자응시로 나타낸다.

(8) 얼굴 찡그림/머리 위로 뽀/위 쳐다봄/입 크게 벌림

CL: 사람을 집어 올린다 [괴롭다]

“기계로 사람을 집어 올린다. (사람이) 괴로워한다.”

고개 아래로 숙임/손응시/입술 모아 앞으로 내뻐

CL: 사람을 들고 있다

“늑대는 사람을 기계로 들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눈을 가늘게 뜸

[맞다][같다][안성맞춤][시작]

[찾다](느린동작)

“맞다. 이 방법이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시작한다. (늑대는) 찾고 있다.

청자응시

[돼지][3][지시]/[3][찾다]

[잡다][목적] ...이하 생략...

“돼지 세 마리를 찾는다. 잡으려고 한다.” ...이하 생략...

<사진3>



a. CL: 사람을 집어 올린다



b. [괴롭다]



c. CL: 사람을 들고 있다

<사진3a-b>에서 수화자의 얼굴 표정은 잡는 기계에 들려진 "사람의 것"이고 <사진3c>는 사람을 들어 올린 아빠 늑대의 얼굴 표정이다. 위 세 사진은 편의상 제시를 위해 분리하였지만 실제 수화 내러티브에서는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9)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걸어가던 돼지 삼형제가 아빠 늑대를 보고 놀라서 급하게 도망가고 그 뒤를 쫓는 아빠 늑대의 모습이다. 첫째 줄에서 돼지들은 평온하게 걸어가고 있다. 수화자는 긴장 없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입을 다무는 비수지 신호를 사용했다. 동시에 검지, 중지, 약지만 편 손은(여기서는 3수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천천히 상하로 움직여 '돼지 세 마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지 부분은 '걸어가고 있다'는 정보만 나타나고 돼지들의 평안한 심리 상태는 비수지 신호로 표현한다.

둘째 줄에서 3수형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뜬으로써 아빠 늑대를 보고 놀란 돼지들을 표현한다. 이때도 수지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여 '멈추어 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비수지 신호는 이 행위의 주체가 돼지들임을 나타낸다. 셋째 줄에서 수화자는 정면을 응시하여 돼지를 쫓는 아빠 늑대의 모습을 나타낸다. 다섯째 줄의 첫 부분은 수화어 없이 수화자의 얼굴 표정만 있다. 이 비수지 신호만으로도 돼지들이 놀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서 연이은 [괴롭다]는 수화어로 돼지들의 심리적 상태를 확실하게 표현한다. 이때의 [괴롭다]는 돼지들이 한 말인지 내레이션인지 구별이 어렵다.

(9) 정면응시/고개 오른쪽으로 기울임

입 다물고 앞으로 내뺌
 [남자][돼지][3] CL: 돼지 셋이 걸어가다

“돼지 세 마리가 평온하게 걸어가고 있다.”

고개 오른쪽으로 급격히 돌림/오른쪽 쳐다봄/눈 커짐/입 벌림
 CL: 돼지 셋이 서다 [바라보다]

“돼지 세 마리는 멈춰 서서 늑대(오른쪽)를 쳐다보며 놀란다.”

정면응시/상체 앞으로 숙임/눈 가늘게 뜸

[늑대][조종하다][늑대][얼굴][늑대] CL: 기계가 달리다

“늑대는 기계를 조정하며 달려온다.”

정면응시

[무엇][잡다][원하다]

“늑대는 무엇인가 잡기를 원한다.”

상체 오른쪽으로 약간 돌림/오른쪽 응시/입 벌림

수화어 없음

[괴롭다]

“돼지들은 오른쪽을 바라보며 놀란다. 돼지들은 괴로워한다.”

<사진4>



a. CL: 돼지 셋이 걸어가다



b. CL: 돼지 셋이 서다[바라보다]



c. [조종하다]



d. CL: 기계가 달리다

<사진4a>는 개체 분류사로서 3수형으로 수화자의 몸 앞에서 상하로 움직인다. <사진4b>는 3수형은 정지 후 [바라보다] 수화어가 산출되어 돼지들이 늑대(오른쪽)를 바라봄을 나타낸다. <사진4c>는 양손을 주먹 쥐어 핸들을 운전하듯이 동작하는 것으로 늑대가 잡는 기계의 핸들을 조정하며 돼지를 뒤따라가는 것이다. <사진4d>는 왼손은 땅을, 오른손은 기계의 전체 모

습을 표현한 것으로 땅위에서 달러가는 기계를 표현한다.

(10)은 기계가 돼지들을 쫓아 열심히 달리다가 결국 나뭇가지에 부딪혀 고장이 나는 장면이다. 첫째 줄은 [남자][돼지] 수화어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며 놀란 표정을 하고 왼쪽을 쳐다보아 돼지가 왼쪽에 있는 늑대를 쳐다봄을 나타낸다. 동사 [도망가다]_{중앙→오른쪽 공간}의 공간 사용이 특이하다. 이 동사를 통한 공간의 사용은 수화자가 돼지 역할에서 늑대 역할로의 전환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수화자는 돼지로서 왼쪽을 쳐다보다가 [도망가다]_{중앙→오른쪽 공간} 수화어의 산출과 동시에 오른쪽을 쳐다보게 되자마자 늑대의 역할을 취한다. 이때 수화자는 아무런 수화어의 산출 없이 단지 자신의 상체와 얼굴과 시선의 방향 그리고 얼굴 표정만으로 늑대로의 역할 전환이 이루어진다. 둘째 줄의 청자응시는 내레이션 부분이다. 청자와의 시선 응시를 통해 수화자는 원래 기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 (10) 눈 크게 뜬/왼쪽 쳐다봄/입 벌림 오른쪽 쳐다봄 오른쪽 쳐다봄/입술 깨물
 [남자][돼지] [도망가다]_{중앙→오른쪽 공간} 수화어없음[가차 없다]
- “돼지는 놀라서 늑대를 쳐다보고 도망간다. 늑대는 돼지들이 도망간 곳을 쳐다보며 가차 없다고 말한다.”
- 청자응시
 [운전하다][원래]CL: 기계가 앞으로 가다 CL: 기계의 짐계를 오므렸다 폈다 하다
 “원래 기계의 작동은 앞으로 가서 짐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 고개 좌우로 흔들 고개 숙임/손 응시/입술 깨물
 [하나] [운전] [가차 없다] CL: 버튼을 누른다
- “하나로는 안되지. 운전대를 잡고 있다. 가차 없다. 늑대는 버튼 3개를 동시에 누른다.”

<사진5>



a. [도망가다]_{중앙→오른쪽 공간}



b. 수화어 없음



c. [원래]

<사진5a>는 수화어 [도망가다]로 수화자 몸 쪽 앞에서 몸과 떨어진 오른쪽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 동사가 이동한 마지막 위치는 다음에 오는 <사진5b>와 연결된다. <사진5b>에서 수화자는 수화어 없이 돼지가 도망간 오른쪽 공간, 즉 [도망]의 마지막 위치를 쳐다본다. <사진5c>는 [원래] 수화어로 수화자는 청자를 바라보며 내레이터 역할을 한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사건 결말인 결과(resolution result)이다. 망가진 기계에 잡혀 마물로 끌려간 늑대는 결국 경찰사까지 가게 되고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된다. 둘째 줄과 셋째 줄에 걸쳐 역할 전환이 나오는데 수화자의 상체는 거의 변화가 없이 머리와 시선 움직임의 변화로 늑대와 경찰의 역할을 나타낸다. 넷째 줄은 내러티브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신호 코드(coda)이다. 수화자가 결과에 연이어 코다를 표현했으므로 분리하지 않고 아래 (11)에 함께 제시하였다. 코다는 [이야기를 끝나다]로 표현했다. 이는 [이야기를 시작하다]와 동일한 손 모양이지만 반대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즉 양손의 손가락을 반쯤 구부려 알파벳 C모양으로 하여 몸 앞에서 나란히 수평으로 위치한 후 주먹을 쥐며 중앙으로 양손을 동시에 이동하여 몸에서 전후 방향으로 위치한 후 정지한다.

(11) 청자용시 청자용시/의문

[지시]/[사람] [누구] [경찰] 휴지 [잡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경찰이다. (경찰이) 늑대를 잡았다.”

RS: 왼쪽 위 쳐다봄 RS: 입 다물고 앞으로 내뺌

[취조하다] [쓰다]

“경찰이 (늑대를) 취조하며 (조서를) 적고 있다.”

RS: 오른쪽 아래 쳐다봄/울상 지음 RS: 왼쪽 위 쳐다봄/ 정면

입 다물고 앞으로 내뺌 용시

[늑대][피로하다] 두 손으로 빌다[잘못하다] [취조하다] [중]

“늑대는 피로워하며 두 손을 빌면서 잘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취조하는 중이다.”

정면용시

[끝][이야기를 끝나다]

“끝이다. 이야기가 끝났다.”

이 수화자의 내러티브에서는 내러티브의 주제를 나타내는 평가(evaluation)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5.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한국수화 내러티브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았다. 한국수화 내러티브에서 나타난 구성된 행위의 주된 유형은 무엇이며 구성된 행위가 내러티브의 전체 의미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는 3절에서 수화에서 구성된 행위는 비수지 신호로 표현되며, 이 비수지 신호의 변화는 수화 문헌에서 역할 전환으로 언급되었지만 역할 전환이 함축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Engberg-Pedersen(1993)이 기능적 차이에 근거하여 세 유형으로 세분화 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1993) 덴마크수화(Danish Sign Language)에서 전달된 말에서 전환된 지시가 발생한다고 하였지만 본고에서 관찰한 한국수화 내러티브에서는 전환된 지시의 사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다. 본고는 수화자들의 대화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수화자의 내러티브를 분석했기 때문에 전환된 지시, 즉 수화자가 인용된 발신자의 관점에서 1인칭대명사의 사용하는 것이 나타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의 내러티브에서는 인용된 화자가 발신자로서 자신을 직접 지칭하는 1인칭대명사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내레이터인 수화자가 늑대와 돼지의 감정 혹은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과 신체를 사용하는 표현 요소의 전환된 속성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환된 위치는 (7)에서 역할 전환(RS)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나타났다. 수화자는 늑대와 그의 아들의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고개와 시선 그리고 미세한 상체의 방향 변화로 중립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캐릭터의 자세를 취했다. 역할 전환은 구성된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성된 말을 표현했다. 특히 늑대와 그의 아들의 말(speech)은 수화자의 수지 부분으로 표현됐다. 이때의 수지 부분이 산출한 것은 명확하게 늑대와 그의 아들이 한 말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간접적 행위와 직접적 행위가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이는 한국수화의 독특한 현상으로 보인다. 앞서 Liddell과 Metzger(1998: 672)가 내러티브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구성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다. 직접적 행위와 간접적 행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수화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수화자의 신체와 시선의 방향 변화로 표현되는 구성된 행위와 수화자의 손으로 표현되는 수화어가 일치되지 않을 때는 구성된 행

위의 비수지 신호가 누구의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8)를 보면, 첫째 줄과 둘째 줄은 구성된 행위와 내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난다. CL: 사람을 집어 올리다는 내레이션이며 얼굴을 찡그림/머리 위로 들/위를 쳐다봄/입 크게 벌림 비수지 신호는 집어 올려진 사람의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구성된 행위이다. 이때 [괴롭다]는 사건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일 수도 있고 들려진 사람의 말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둘째 줄의 CL: 사람을 들고 있다는 내레이션이고 비수지 신호는 늑대의 구성된 행위이다. 이처럼 수화어와 동시에 산출되는 비수지 신호는 반드시 수화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수지 신호가 내레이션인지 아니면 캐릭터의 말인지 그리고 캐릭터의 말이라면 누구의 것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비수지 신호와 수지 신호가 결합하여 생성한 전체 의미의 파악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한국수화 내레이션에서 구성된 행위는 주로 얼굴과 시선 응시의 방향, 미세한 상체의 방향 변화, 그리고 인용하는 그 누군가의 감정 상태, 얼굴 표정으로 표현된다. 특별히 수화자의 시선 응시는 전체 내레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고는 한 명의 수화자의 내레이션 속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를 분석하는데 제한을 두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수화문의 구성된 행위를 분석하여 수화문의 구성된 행위의 유형과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맥락이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구성된 행위의 분석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남기현. 2009. 한국수어 동사 분류사 연구. 『언어연구』, 24.4, 707-730.
- 송경숙. 2003. 『담화 화용론』. 한국문화사.
- Crasborn, O., van der Hulst, H., van der Kooij, E. 1998. Phonetic and phonological distinctions in sign languages. <http://www.sign-lang.uni-hamburg.de/intersign/workshop2/>.
- Emmorey, K., & Reilly, J.(1998). The Development of Quotation and Reported Action: Conveying Perspective in ASL. In E. Clark(Ed.), Proceedings of the Twenty-night Annual Stanford Child Language Research Forum, pp. 81-90, CSLI publications: Stanford, CA.
- Engberg-Pedersen, Elisabeth. 1993. Space In Danish Sign Language: The Semantics and Morphosyntax of the Use of Space in a Visual Language. Hamburg: Signum Press.
- Labov, W. 1972. The transformation of experience in narrative syntax. In W.

- Labov(ed.), *Language in the Inner Cit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354-396.
- Liddell, K. 1980. *American sign language syntax*. The Hague; New York: Mouton.
- Liddell, K. and Metzger, M. 1998. Gesture in sign language 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30, pp. 657-697.
- Metzger, Melanie. 1995. Constructed dialogue and constructed ac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Ceil Lucas (ed.) *Sociolinguistics in Deaf Communities*, 255-271.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Sandler, Wendy & Lillo-Martin Diane. 2006. *Sign Language and Linguistic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koe. W. 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 of the American deaf*.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No. 8). Buffalo: Dept. of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University of Buffalo.
- Supalla, T. 1982. *Structure and acquisition of verbs of motion and loca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Tannen, D. 1989. *Talking voices: repetition, dialogue, and imagery in conversational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nen, D. 2007. *Talking voices: repetition, dialogue, and imagery in conversational discourse*. 2n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witserlood, I. 2003. *Classifying hand configurations in Nederlandse Gebarentaal (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recht.

남기현

서울시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E-mail: chironam@hanmail.net

전화번호: 02-3290-2170

원성욱

경기 평택시 장안동 5-3

한국재활복지대학 수화통역과

E-mail: woonsok@hanrw.ac.kr

전화번호: 031-610-4790

허일

경기 평택시 장안동 5-3

한국재활복지대학 수화통역과

E-mail: heol@hanrw.ac.kr

전화번호: 031-610-4790

접수일자: 2010. 12. 15

게재결정: 2011. 02. 20

※ 본인들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논문 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